

“부처님 말씀대로 합시다”

고산 총무원장 기자간담회

“가능한 중징계 지양”

“내 별명이 조계종 도목수야.”
고단한 행자시절과 어른을 모시는 시자 생활을 거쳐 새질 짓기 불사에도 일가견을 이취 이 같은 별명을 얻었다는 고산스님.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식을 앞둔 7일 교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단운영 계획을 잔잔히 들려 주었다.

▲중한 소임을 맡고 서울에 왔는데 나 자신은 변한게 없어. 모든 일은 수행자의 정신과 자세로 풀어나가면 잘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마음먹지 말라는 것에서 출가자의 본분이 시작됩니다. 99년은 9란 수가 들어 들었어. 세속에서는 아홉수를 안 좋아 하지만 사실 아홉이란 수는 마침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종단도 갈등을 마치고 새 회장으로 출발하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는 중이 권위상태지만 중현에 의해 곧 훌륭한 어른을 모실 것입니다.

정화회의 가담 스님에 대한 징계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체할 같은 중징계는 지양하고 심하게는 제재 등으로 조치해 그 분들을 좀 쉬게 하고 싶어요. 또 과거에 억울하게 징계된 분들도 가려서 사면을 해야 화합이 됩니다. 총무원 청사 철거 문제도 거론되는데 나와 인연이 깊은 건물입니다.

92년부터 조계사 주지를 하며 3층까지 지었고 월탄스님이 5층으로 올렸어요. 원로스님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가 철거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여러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 해결에 재가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중앙신도회가 잘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찰 운영에 재부 지식이 풍부한 신도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싶어요. 총무원장 임기도 단임제로 하고 선거보다는 추대 형식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운영 기회도 더 넓혀 갈 수 있는 때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임연태 기자(yllim@buddhopia.com)



◇조계종 첫인사는 고른 문중안배로 화합종단 구현의 의지를 보였다는 평이다. 사진은 7일 국장급 임명장 수여식.

조계종 새집행부 인사 문중안배 화합 기대

조계종 제29대 총무원 집행부의 첫인사가 마무리 됐다. 이번 인사는 문중적 안배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는 여론을 남기고 있다. 범어사, 해인사 등 용성문도 관련 6개 본사에 다소 많은 소임이 맡겨진 가운데 통도사를 제외 한 거의 모든 본사와 문중이 골고루 새 집행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장급 인사에서 각 본사별로 2명씩 추천됐다는 후 일담도 이를 잘 뒷받침하는 대목.

이같은 안배적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가지다. 하나는 문중과 지역별로 고른 인사가 이뤄진 것은 화합종단 실현이라는 당면 과제를 푸는데 상당한 긍정성을 보여준 것이라 해석이다. 문중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는 종단 현실에서 각 문중에서 집행부에

동참함으로써 종단사태에서 돌출된 여러 문제들을 합의로 풀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반해 문중 안배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로 인해 종단 사태 수습 일정 등 서둘러야 할 중무 일정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일대 혼란을 겪은 종단의 수습을 위해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집행부의 ‘팀웍’을 추스리는 데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조계종. 그 견인차 역할을 맡을 총무원 집행부가 ‘재출발’의 희망을 창출해 내는 역량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주요종단 총무원장에게 듣는 새해사업

각 종단들은 새해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을까.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각 종단들의 새해 사업은 종단 체제의 정비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요약된다.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종의 새해 사업을 각종단 총무원장들에게 들었다.

조계종 개혁과제 풀면서 문화세기 대비

조계종은 올 상반기 동안 종단 사태로 흐트러진 중도들의 애증심을 다시 모으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모든 개혁과제들은 법적인 절차를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단 사태로 돌출된 종단내 법적 구조적 갈등을 중현종법에 따라 풀어 갈 것이라 밝혔다.

조계종은 중앙신도회 조직을 정비해 활성화하고 복지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의 전산화 사업은 중무행정전산화와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의 구축으로 가다가 잡혀 있다. 중무행정 전산화는 6월까지 프로그램 설계를 마치고 8월부터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하는 것이 목표다. 달마넷 사업은 5백여 전통신찰과 모범 포교당의 정보를 망라하게 된다.

조계종은 문화의 세기를 대비한 외국인 대상 불교문화프로그램 개발, 승가복지대학 수립, 승려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포교인력 및 조직강화 대책 마련, 해외포교 및 포교 영역확대 등의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고산 총무원장

태고종 포교·교육 역점...복지법인 설립

태고종은 올해 종단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기하고 정통종단의 위상과 대승교화종단의 이념을 제고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이를 위해 “선암사 성역화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연수 교육을 통해 종단관을 확고히 하는 한편 포교와 교화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승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한 종단의 사회적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원과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관장할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종단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역대 종정 계보와 사찰현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안내책자 발간사업과 종조인 태고보우국사의 생애와 종지종풍을 밝히는 법어집 발간, 한국불교 법난사를 밝히기 위한 세미나, 종전관찰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육천 범용대학을 통한 전통불교문화 이수자 육성과 불원사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영산제 시연 등 특성을 살려 종단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정통불교문화의 저변확대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인곡 총무원장

천태종 금강대학 건립-30여 사찰불사 매진

천태종은 97년 정구대학 인가를 받은 금강대학 건립추진과 사회복지사업, 사찰건립불사 등 사회적 참여를 통한 교세확장에 매진할 계획이다. 동남아 불교국가들과도 교류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올해에는 97년 정구대학 인가를 받은 금강대학의 교사를 건축하고 2천년에 입학생을 맞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관 및 어린이집,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방안을 모색, 종단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관련 재단법인인

종단이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칠 방침이다. 운덕스님은 또 “충분한 구인사에 건립 중인 조사당을 올 봄에 낙성하는 등 전국 3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불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간 이래 1차 작업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천태종은 21세기를 앞두고 종본산 구인사와 각 말사를 잇는 중무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내외적 종단 홍보에도 나선다.



◇운덕 총무원장

진각종 국제교류 확대-종단 홍보관운영

진각종은 지난해 실적자 가정동보호시설 선재의 집과 어린이집 수탁운영 등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설립이라 올린 개가를 기반으로 올 한해도 복지불사에 매진해 사회적인 종단위상 제고에 힘을 전방이다.

성초 총무원장은 “종단 홍보관을 올해 안에 설립하고 종단 C·I 작업 즉 이미지 통일작업 추진도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초 총무원장은 또 “종단 전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전국 각 심인당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종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위덕대를 비롯한 종합학교와의 전산망 구축사업을 통해 중무행정 일원화와 포교사업의 체계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불교연구소를 주축으로 미국 워싱턴 심인당 설립 및 스리랑카와의 불교교류 확대 등 국제포교사업을 통한 교세확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종조 회담 대중사의 1백주년 기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성초 총무원장

관음종 교육체제보강 불교저변화 운동

관음종은 2천년부터 ‘보살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 한해 승려 및 신도 연수교육을 강화해 종단 내실을 다지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관음종이 계획하고 있는 ‘보살운동’은 불법(佛法)을 사회운영 전반에 확대적용해 불교인이 지역사회의 정신적·행정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불교저변화 운동이다.

총무원장 흥파스님은 “총책적으로 △포교와 수행 △합리적인 사찰운영 △지역사회참여 부문에 역점을 뒀 종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승려와 사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흥파스님은 “승려 인거제도를 도입하고 신도 연수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종도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음종은 이같은 종단 내실다지기의 일환으로 4층 규모의 교육원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개원한다는 목표로 천안 보명사에 건립 중이다. 또 사회후원회와 국가인연과 국난 극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보살제 수계법회를 개최 하는 등 대사회적인 역할도 모색한다.



◇흥파 총무원장

A백화점 1층 출입구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두줄로 길게 늘어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기묘한 신수를 봐주고 있었다. 신수를 풀어주는 남녀 두사람이나 줄을 서있는 이들은 대체로 20대로 재미삼아 1년을 점쳐보는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희망의 새 설계를 하는가 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 하기도 한다. 잠을 보는 집은 그런 기대와 불안한 마음을 유혹한다. 그 래서 새해가 되면 점집문전에 사람들 발길이 잦다.

A백화점의 신수봐주기 풍경과는 달리 올 신년초 점집에는 40~50대 남성들이 많이 드나든다고 한다. IMF가 점집의 주고객을 주부 또는 젊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놓았다. 그 남성 고객들은 자기 개인 문제에 앞서 나라운세를 먼저 묻는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 운세는 어떻습니까”
“IMF는 언제쯤 끝날까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운이 좋아야 집채만 경기가 되 살아나고, 실직자도 줄고, 사업도 풀릴 수 있다고 국운에 희망을 걸어보는 그 마음을 누가 이해 못하겠는가.

목어 소원성취 하려면

그러나 잘 생각해 보자. 개인의 흥망이 국운과 직결돼 있다고 보아 나라운세를 점한다면 답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모두 크고작은 자기일에 최선을 다해 IMF 극복에 나서, 개개인의 운이 점차 좋아지면 곧 나라가 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라운세에 기대기 보다 먼저 자기운세를 스스로 가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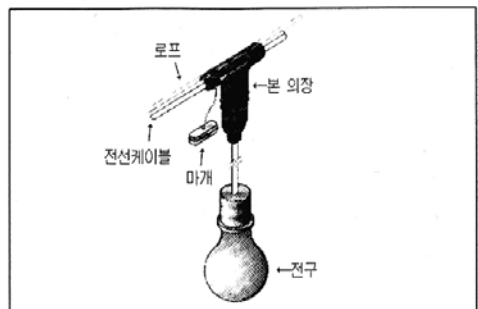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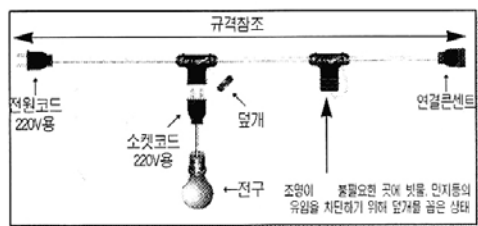
자기 확신을 갖자. 자기를 믿고 꼭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발원을 구체화하고 일의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자. 그러면 힘이 솟고 노력이 나오고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좋은 운은 그렇게 가꿔진다.

부처님께서는 정복으로 어려움에 빠지거나, 빠뜨리는 일을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소원성취의 방법을 묻는 파세나디 왕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다.

“그것은 오직 한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하면 현재의 소원을 성취하고 후세의 소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방일에 의지하지 말고 불방일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고의 재물이 늘어나 풍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잡아람 불방일경)

봉축행사 가로등·법당 기도등용 전기배선 및 도로 지주용 간판 설치 안내

귀의 삼보하움고, 전법 도생에 여념 없으신 스님의 고귀하신 뜻에 합장 향배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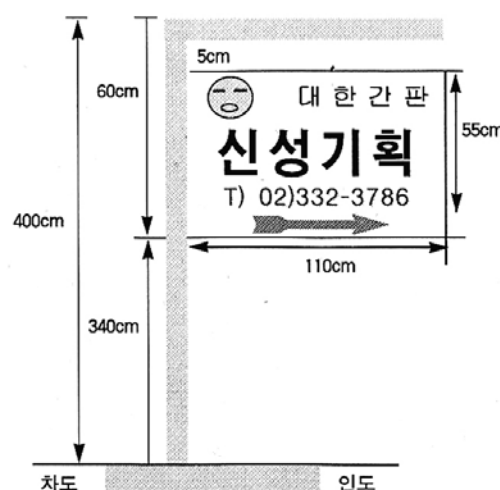


- 규격
등간격 30cm·50cm → 전체길이 25m
등간격 1m, 2m, 3m, 5m → 전체길이 50m
기타주문: 주문제작

- 등종류
- 외부용: 후로킹
- 내부용: 팔각등
실크후로킹

- 기타주문
※ 본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성기획 ○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 02)322-3785



간판
대한불교 00종
00사 ↑

- 규격
중로구 80cm × 40cm
그외 지역 110cm × 55cm
개인소유자: 제한없음

- 재질
- 스텐레스 및 GA 철판
- 허가 대행 및 A/S

○ 신성기획 ○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 02)322-3785

취급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락판, 천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